

특집 코로나-19의 사회-공간 읽기(II)

# 코로나19 이후 거주환경의 차이가 초등학생의 학습, 게임, 놀이 시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부천시 소사구 세 학교를 중심으로

The Impact of COVID-19 on Elementary Education at  
Three Schools in Bucheon City, Korea

이시효\*

이 연구는 코로나19 사태가 거주환경이 다른 초등학생의 학습, 게임, 가족관계, 놀이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연구를 위해 부천시 소사구 내 세 학교 3~6학년 449명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온라인 수업의 경우 내용의 다양성과 집중도, 흥미, 학습효과가 모두 미흡했으며, 저소득층 거주지역 학생일수록 집중도와 학습효과가 떨어졌다. 부(wealth)는 학부모의 교육 정도와 연관이 있었으며 이는 코로나19 이후 계층별 학력 격차를 유지 또는 강화했다. 게임 시간은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더 많이 증가했으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개선되었다. 초등학생이 성인의 보호 없이 낮 시간을 보내는 비율이 32.3퍼센트로 매우 높았다. 저소득층 주거지에는 초등학생의 놀이공간이 충분하지 못했다.

주요어: 코로나19, 초등학생, 교육, 공간, 불평등

## 1. 서론

코로나19 사태는 기존 자연재해와 다른 사회적 양상을 보인다. 기존 경험했던 재난이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좋게 기억되는 시절의 향수, 일시적 유토피아로 우리를 인도”했다면(솔닛, 2012: 40),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

\*\* 독일 바우하우스대학 도시사회학 박사(leesihyo@gmail.com).

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대면적(contact) ‘향수’가 아닌 비대면적(untact)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으로 일관했던 한국의 공교육은 코로나19 이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019년 12월 말 방학 이후 미루어지던 개학이 4월 9일 온라인으로 시작되고 5월 27일부터 등교수업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제한적 등교와 일방향성 온라인교육은 사실상 ‘엄마 개학’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결과적으로 6월 대입수능 모의평가에서 중위권 규모가 줄고, 상위권과 하위권이 증가하는 학력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뉴시스, 2020).

“재난의 파괴적인 힘은 기존 질서를 뒤집고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때(솔닛, 2012: 32), 지난 2월 이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진행된 여러 실험은 기존 공교육의 한계를 넘어설 기회가 될 수 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감염병 상황이 끝나도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을 통해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보장하겠다”고 미래 공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이성희, 2020). 하지만 새로운 방향의 제시는 코로나19 이후 진행된 공교육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토대로 해야 할 것이다. 특히 13세 이하 초등학생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환경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연구를 통한 체계적인 교육정책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세계 여러 국가에서 코로나19 이후 초등학생 교육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아일랜드의 경우 장기간 학교 폐쇄와 홈스쿨링 진행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대학학위를 가진 고학력 부모의 자녀가 교육 시간, 교육자료 제공, 학업에 대한 우려 등에서 우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Doyle, 2020). 호주의 경우 학교 폐쇄로 인해 46퍼센트의 아동 및 청소년들이 교육 성취도, 영양 상태, 이동성, 사회적·감정적 행복에서 위협을 받고 있다(Brown, 2020). 유럽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폐쇄는 학교 도서관의 접근과 점심 제공을 막았으며, 홈스쿨링의 경우 저학력 부모에 비해 고학력 부모가 자녀들에게 더 좋은 온라인 환경과 도서, 공부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lasko and Schnepf, 2020).

하지만 코로나19가 초등학교에 미친 영향이 모두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아일랜드 초등학교 교사와 관계자 28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메이누스 국립대학의 보고서에 따르면 부정적인 영향으로 ① 학교의 사회적 효과 상실, ② 원거리 교육으로 사회적 관계 맺음의 불가능, ③ 취약계층 학생의 음식 제공, 안전 및 복지의 제공이 취약해진 점을 지적했지만, 동시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① 온라인 교육 가능, ② 다양한 내용의 교육 가능, ③ 가족과 좀 더 질 높은 시간의 향유를 꼽았다(Jolanta and Dempsey, 2020).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로는 지난 6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전국 이동과 청소년 100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었다. 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평균 수면시간은 41분, 공부 시간은 56분, 미디어 사용 시간은 2시간 44분 증가, 운동 시간은 21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성희, 2020). 또한 코로나19 이후 성인 보호자 없이 낮에 집에 있는 비율이 초등학생 46.8퍼센트, 중학생 55.9퍼센트, 고등학생 64.9퍼센트이며, 밤 12시 이후 취침하는 비율은 코로나19 이전 35.1퍼센트에서 이후 62.3퍼센트로 증가했다(김주연, 2020). 하지만 기존 국내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초등학생의 학습과 생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계층별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 필자는 부천시 소사구 일대 세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양적, 질적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연구의 주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 ①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수업은 초등학생의 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 ② 코로나19 사태는 초등학생의 게임, 놀이시간, 부모와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 ③ 코로나19 이후 거주환경의 차이는 초등학생의 계층별 교육격차에 영향을 미쳤는가?

## 2. 연구방법

연구는 세 학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인터뷰, 정부의 정보공개포털의 자료요청, 온라인 자료조사 및 지역답사를 병행하였다. 설문조사는 부천시 소사구 내 세 초등학교인 일신초등학교(이하 일신초), 창영초등학교(이하 창영초), 부원초등학교(이하 부원초)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소사구를 선택한 이유는 필자가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변 상황 파악과 설문조사, 인터뷰 진행이 용이했기 때문이다. 또한 부천시 코로나19 확진자는 187명으로 10만 명 당 21.95명이며, 이는 대구시를 제외한 한국 전체 평균 14.4명보다 높은 편으로 부천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2020년 8월 5일 기준).

설문조사 방법은 학교에 설문조사를 공식 요청하였고, 학교 앞 하갯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병행했다. 학교 측에 요청한 설문조사는 창영초와 일신초에서 응해주었다. 학교 앞 하갯길 설문조사는 세 학교 모두에서 5차례에 걸쳐 필자가 직접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질적 인터뷰도 동시에 진행했다. 모든 설문조사는 7월 13일부터 8월 19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질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3학년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 설문에 응한 총 학생은 449명으로 이 중 293명(65.3퍼센트)은 창영초, 84명(18.7퍼센트)는 일신초, 72명(16퍼센트)은 부원초 학생이다. 성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학년별 구분에는 5학년과 6학년의 참여율이 86.7퍼센트로 높았다. 3학년과 4학년 비중이 적은 이유는 학교 협조로 교실에서 행해진 설문조사 대부분이 5학년과 6학년이었기 때문이다.

설문 항목은 총 24개 항목으로 2개 항목은 개인적 신상 관련 내용, 11개 항목은 교육 관련 내용, 9개 항목은 생활 관련 내용, 마지막 2개 항목은 코로나 이후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한 서술형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자료 분석은 IBM의 통계분석 프로그램 SPSS를 활용하였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거주 장소와 부모의 부(wealth)는 자녀의 교육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정재훈, 2014; 노혜진, 2014).<sup>1)</sup> 초등학교는

〈표 1〉 설문조사에 응한 학생들의 특성 분석

학교	설문 방식		성별		학년				합계
	교실	교문	남학생	여학생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일신초	56	28	42	42	9	5	9	61	84
창영초	278	15	147	146	8	8	131	146	293
부원초	0	72	46	26	27	3	13	29	72
합계	334	115	235	214	44	16	153	236	449
비율	74.4%	25.6%	52.3%	47.7%	9.8%	3.6%	34.1%	52.6%	100%

그 특성상 통학구역이 명확해 거주 환경을 통한 부모의 부(wealth)를 유추할 수 있다. 거주 환경에 따른 교육격차를 확인하기 위해 소사구 내 직선거리로 1.3킬로미터 이내에 있지만 거주 환경에는 큰 차이가 있는 세 초등학교를 설문대상으로 선정했다. 2003년 개교한 일신초는 10여 년 전 형성된 범박동 신도시힐스테이트 단지의 중심에 있다. 1992년 개교한 창영초 주변은 1989년쯤 입주가 시작된 30년이 넘는 오래된 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1984년 개교한 부원초는 성주산 아래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가 밀집된 곳에 위치해 있다. 2020년 8월 5일 기준 부동산 거래 사이트 호갱노노와 네이버를 통해 세 학교 주변의 아파트, 빌라, 주택의 실매매가 평균을 비교해 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신초 주변 시세가 부원초와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높다. 이 거주환경의 차이는 학부모의 교육 정도와도 연관이 있으며 이는 〈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교 통학구역 내의 외국인 거소신고인수 비율도 차이를 보인다. 일신초의 통학구역인 범박동의 외국인 거주자 비율은 0.7퍼센트로 매우 낮다. 반면 부원초의 통학구역인 소사본동은 13.8퍼센트로 부천시 평균 4.4퍼센트보다 3배 이상 높고, 이 중 98퍼센트는 중국인으로 이 지역 거리에서는 중국인 동

- 1) 이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 각 구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어 등급 비교를 통해 거주지역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논한 바 있다. 그 결과 강남구의 영어 1등급 학생의 숫자는 금천구의 4배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노혜진(2014)은 교육 불평등의 핵심 메커니즘이 소득이 아니라 자산, 즉 부(wealth)에 있다고 주장한다.

〈표 2〉 학교별 통학구역 내 거주환경 차이

학교	통학구역	주거 현황	주변 주택시세* (만원/평당)	외국인거주 비율
일신초	범박동	10년 된 신도시 아파트 단지	1,410	0.7%
창영초	괴안동, 소사본3동	30년 된 아파트 단지	989	3.8%
부원초	소사본동	30년 이상 된 단독주택 및 빌라	710	13.8%

주: 일신초와 창영초 주변 아파트 시세는 호갱노노 실매매가 평균, 부원초 주변 주택 및 빌라 시세는 네이버 매매가 평균 적용(검색일: 2020.8.5).

포와 중국상점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 지역에 중국인 동포가 밀집해 거주하는 주요 이유는 저렴한 전세, 월세 주택을 구할 수 있고, 지하철 1호선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학교 통학구역의 주거지 상태와 주택 시세를 통해 학교별 학부모의 부(wealth)를 유추해 보면 일신초, 창영초, 부원초 순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3. 코로나19가 학습에 미친 영향

#### 1) 온라인 수업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4월 9일부터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초등학생들은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고, 교사는 익숙하지 않은 원격수업 교수법과 온·오프라인 수업 병행에 부담을 느꼈다(동아일보, 2020). 문제점으로 자주 지적되는 점은 쌍방향 소통과 원격수업 내용의 다양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온라인 수업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 대상인 학교 중 창영초 4학년 온라인 수업 내용을 조사했다.<sup>2)</sup> 조사 기간은 7월 6일부터 10일까지 한

2) 현재 온라인 수업의 내용은 각 학급 담임선생님이 준비하므로 모든 학급의 내용이 조금씩

〈표 3〉 소사구 창업초 4학년 온라인 수업 내용 사례분석

날짜	교시	과목	외부영상	자체영상	터치형 질문	이미지 질문	설명/과제	공지*
6일	1~2	체험활동	5	1	2		2	
	3~4	수학	4			1	3	3
	5~6	음악	4				3	2
7~8일 (1일 등교)	1~2	영어	7				1	1
	3~5	과학	3			2	4	3
9일	1~2	국어	2			6	3	2
	3~4	체육	6				2	1
	5~6	사회	1		3		5	2
10일	1~2	국어	3	1			5	
	3~4	수학	6				2	3
합계			41	2	5	9	30	17
비율(%)			39.4	1.9	4.8	8.7	28.8	16.3

주: 공지사항은 저작권 주의, 쉬는 시간·점심시간 알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간으로 주 5일 중 4일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온라인 수업은 한 과목당 평균 11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튜브 등 외부영상 링크가 39.4 퍼센트로 가장 높고, 다음은 교과 설명과 과제 등이었다. 질문이나 설명, 공지사항 등은 텍스트 형식의 페이지는 많은 시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대부분 수업 시간은 영상 시청으로 대체되었다. 예를 들어 7월 9일의 경우 영상은 9개로 총 시청 시간은 39분 37초이다. 만약 질문과 설명 한 페이지에 3분, 공지사항을 읽는 데 1분이 소요되었다면 온라인 수업에 소요된 시간은 총 1시간 4분 37초이다. 개개 학생의 학습 태도와 의지에 따라 영상시청을 넘기지 않고 끝까지 보는지, 그리고 이미지로 부여되는 질문과 과제를 얼마나 성실히 수행하는지에 따라 수업의 시간과 효과가 결정된다. 실시간 온라인 수업이나 양방향 수업은 한 주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터뷰를

달라 몇 개 사례를 조사하는 방법을 취했다. 여러 학교와 학급의 내용을 비교해 오차를 줄이는 방법을 시도하려 했으나, 로그인을 통해서만 수업 내용에 접근이 가능해 한 학급만 분석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대략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한계를 가지므로 추후 온라인 수업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표 4〉 학교별 온라인 수업 소요시간 설문결과

		30분	1시간	1시간 30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전체	평균시간 (분)
일신초	빈도	3	10	8	21	22	14	6	84	155
	비율	3.6%	11.9%	9.5%	25.0%	26.2%	16.7%	7.1%	100.0%	
창영초	빈도	26	33	55	86	55	23	10	288	127
	비율	9.0%	11.5%	19.1%	29.9%	19.1%	8.0%	3.5%	100.0%	
부원초	빈도	19	18	14	11	6	2	0	70	83
	비율	27.1%	25.7%	20.0%	15.7%	8.6%	2.9%	0.0%	100.0%	
합계	빈도	48	61	77	118	83	39	16	442	125
	비율	10.9%	13.8%	17.4%	26.7%	18.8%	8.8%	3.6%	100.0%	

통해 확인한 결과 1학년 전체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온라인 수업 소요시간에 대한 세 학교의 설문조사 결과는 평균 2시간 5분이다. 코로나19 이전 4학년 교실수업이 오전 9시에 시작해 오후 1시 40분에서 3시 20분 사이 (평균 오후 2시 20분) 마쳤다면, 온라인 수업은 9시에 시작했다면 평균 오전 11시 5분에 모든 수업이 끝나게 된다.

학급별 수업 내용과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설문 결과만으로 확인해 볼 때,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의 학생일수록 온라인 수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 길었다. 일신초 학생의 경우 평균 2시간 35분이 소요되지만, 창영초의 경우 2시간 7분, 부원초의 경우 1시간 23분이 소요되었다. 시간대별 차이에서도 일신초의 가장 높은 비율이 2시간과 3시간 사이지만, 창영초는 1시간 30분에서 3시간 사이, 부원초는 1시간 이내에 미치는 비율이 52.8퍼센트로 가장 높다. 이는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 학생일수록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필요한 온라인 수업에 더 집중한다는 것을 뜻한다(〈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온라인 수업 시 부모의 도움 여부에는 일신초와 부원초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온라인 수업이 학업에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11.6퍼센트가 도움이 된다고 답해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의 학습효과가 낮다고 평가했다. 설문 결과의 학교별 차이에서는 일신초가 17.9퍼센트로 창영초 대비 1.8배, 부원초 대비 1.6배 높다.<sup>3)</sup>

〈표 5〉 학교별 온라인 수업 학습효과에 대한 설문결과

		예	아니요	합계
일신초	빈도	15	69	84
	비율	17,9%	82,1%	100%
창영초	빈도	29	264	293
	비율	9,9%	90,1%	100%
부원초	빈도	8	64	72
	비율	11,1%	88,9%	100%
합계	빈도	52	397	449
	비율	11,6%	88,4%	100%

〈표 6〉 학교별 온라인 수업에 대한 흥미 여부 분석

		그렇다	아니다	합계
일신초	빈도	14	70	84
	비율	16,7%	83,3%	100,0%
창영초	빈도	60	233	293
	비율	20,5%	79,5%	100,0%
부원초	빈도	20	52	72
	비율	27,8%	72,2%	100,0%
합계	빈도	94	355	449
	비율	20,9%	79,1%	100,0%

온라인 수업의 학습효과 설문 결과 중 예상과 달리 부원초의 비율이 창영초보다 높았다.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을 위해 온라인 수업에 대한 흥미 여부와 학부모의 수업 도움 여부를 확인해 보았다. 〈표 6〉에서 나타난 것처럼

- 3) 이는 장석웅 전남교육감이 지난 6월 대입수능 모의평가 결과 중위권 규모가 줄고, 상위권과 하위권은 증가하는 학력 양극화 현상에 대해 "상위권은 온라인 수업에 잘 적응해 학습을 효율적으로 하고 적절하게 자기 시간도 이용하고, 부족함 점은 다른 방법으로 보완하는 자기관리 역량을 발휘해서인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교사의 피드백 영향을 많이 받는 중하위권 학생들은 그렇지 못해 성적이 떨어진 것"이라고 파악한 것에 근거가 있음을 보여준다(〈뉴시스〉, 2020).

‘온라인 수업 내용이 흥미롭다’는 전체 응답은 20.9퍼센트에 머물러 일방향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가 전체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별 차이에서는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낮은 주택 가격 지역의 초등학생일수록 온라인 수업이 흥미롭다고 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 수업의 다양한 내용과 전달 방식이 계층별 교육 평등을 위한 새로운 방식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부원초가 창영초보다 온라인 학습효과가 더 높게 나타난 또 다른 이유로 온라인 수업에 대한 부모의 도움 여부를 확인해 보았다. 설문 결과 세 학교 전체 학생의 11퍼센트만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다고 답해 그 비율이 낮았다. 학교별 차이에서는 일신초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부원초가 창영초보다 오히려 5.3퍼센트가 높았다. 이 순서는 <표 5>의 온라인 수업이 학습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설문과 같은 결과이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온라인 수업의 학습 효과에 대한 설문 결과는 온라인 수업에 대한 계층별 흥미의 차이, 부모의 도움 여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수업의 학습 효과에 대한 설문 결과에서 부원초의 비율이 창영초보다 높다고 해서 이것이 곧 실제 학습효과의 반영과 교육격차의 약화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일신초는 학습효과와 흥미, 부모의 도움 모든 면에서 다른 학교에 비해 높은 비율을 유지했으며, 실질적으로 세 학교의 학습격차는 코로나 19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 요청(접수 번호 7187864)으로 확인한 ‘기초학력 진단검사’<sup>4)</sup> 결과를 보면 낮은 주택 가격에 위치한 부원초의 미통과 학생 비율이 코로나19 전후 모두에서 다른 학교에 비해 높았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2020년 5월 이루어진 진단검사 결과에서 2학년과 3~6학년 모두에서 부원초의 미통과 학생 수 비율이 다른 학교에

4)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새로운 학년의 교육내용을 이수하는 데 필수적인 기본 학습 내용(읽기, 쓰기, 셈하기)을 학생들이 갖추고 있는지를 진단하는 검사로, 학교별로 학교와 지역 실정에 맞게 다양한 진단보정 도구(진단보정시스템, 기초학력향상꾸꾸, 학교별 자체개발 문항, 학생관찰, 학생·학부모 상담 등)를 선택하여 검사한 결과이다. 검사 결과 제공: 경기도 부천시 교육지원청.

〈표 7〉 학교별 온라인 수업에 대한 부모의 도움 여부 분석

		그렇다	아니다	합계
일신초	빈도	14	70	84
	비율	16.7%	83.3%	100.0%
창영초	빈도	25	266	291
	비율	8.6%	91.4%	100.0%
부원초	빈도	10	62	72
	비율	13.9%	86.1%	100.0%
합계	빈도	49	398	447
	비율	11.0%	89.0%	100.0%

비해 눈에 띄게 높았다. 이 비율은 내국인 학생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조선족 거주 비율이 높은 부원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실질 비율은 더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를 통해 계층별 초등학생의 학력 격차가 코로나19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계층별 학력격차 유지의 원인은 온라인 수업의 한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코로나19 이후 등교수업은 온라인 수업의 한계인 쌍방향 수업의 부재를 보완하지 못했다.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코로나19 이후 등교수업은 학생들 간의 교제, 또래문화, 학생과 선생님의 대화, 수업 중 모르는 내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불가능했다.

1교시: 9시~9시 40분. 수업은 영상시청이 반, 선생님이 칠판에 쓰는 형식이 반이다. 예전과 다르게 코로나 이후에는 수업 중에 선생님께서 칠판에 나와서 풀어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선생님은 칠판에 글을 쓰면서 혼자 수업하신다.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다. 금지는 아니지만, 등교부터 하교 때까지 아무도 말하지 않아서, 학교에선 말을 하는 것이 이상한 일로 여겨진다. 그것이 모르는 문제를 질문하는 것이라 해도 다들 그렇게 느낀다. \_ 창영초 4학년 남학생

설문 결과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수업은 내용, 집중도, 학습효과 모든 면에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 더 흥미를 느

〈표 8〉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대상 학년	학교	2018			2019			2020. 5.		
		전체 학생 수	미통과 학생 수	비율	전체 학생 수	미통과 학생 수	비율	전체 학생 수	미통과 학생 수	비율
2학년	일신초	196	0	0.0%	176	1	0.6%	181	0	0.0%
	창영초	142	0	0.0%	156	0	0.0%	125	0	0.0%
	부원초	47	4	8.5%	65	2	3.1%	86	5	5.8%
1학년	일신초	-			173	2	1.2%	검사 전		
	창영초				127	0	0.0%			
	부원초				81	6	7.4%			
3~6 학년	일신초	-			-			729	3	0.4%
	창영초							584	2	0.3%
	부원초							225	8	3.6%

끼지만 이것이 곧 학력격차를 줄이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등교수업의 진행 방식 역시 온라인 수업의 한계를 보완해 주지 못했으며, 이는 등교수업의 확대가 곧 학습격차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자유롭게 내용을 기술하는 설문조사의 서술형 답변에서 온라인 수업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반복되는 내용 중 일부를 적으면 아래와 같다.

온라인 수업 집중이 안 된다. \_ 부원초 3학년 남학생

온라인 수업이 너무 너무 싫다. \_ 창영초 5학년 여학생

엄마와 온라인 클래스로 인해 다툼이 일어난다. \_ 창영초 5학년 여학생

온라인 수업을 할 때 계속 딴 짓, 또는 게임을 하게 된다. \_ 창영초 6학년 여학생

딱히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진 않아서 온라인 클래스도 괜찮다. \_ 일신초 6학년 여학생

아무래도 원격수업이다 보니까 학교 수업보다는 덜 도움이 되는 것 같다. 헛갈리는 것을 물어볼 수도 없기에 학교 수업이 필요하다. \_ 일신초 6학년 여학생

## 2) 사교육 및 학습 시간 증감

한국의 사교육비 지출은 비중은 OECD 국가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높다. 가계 지출비 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한국은 16.1퍼센트로 영국은 2.1퍼센트 대비 7배 이상 높다(여유진, 2020).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란 개인의 타고난 속성(성, 인종,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이 교육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클 때라고 말할 수 있다면(장상수, 2016), 한국의 경우 교육 기회의 불평등은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 이전과 이후 모두에서 높은 주택 가격을 형성하는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이 더 많은 수의 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코로나19 이후 응답자 전체 평균 학원 등록 수는 3.36개에서 2.99개로 0.37개 감소하였다. 학교별 감소폭에는 세 학교 모두 감소하였지만, 창영초가 일신초와 부원초보다 감소폭이 더 높았다. 일신초와 부원초를 비교해 보면 코로나19 이전 두 학교의 학원 등록 수 차가 1.37개에서 이후 1.4개로 그 폭을 유지하고 있다.

영어, 수학 등 교과목과 관련한 학원 수 등록에 대한 학교별 차이의 폭은 전체 학원 등록 수보다 컸다. 코로나19 전후에서 모두에서 일신초의 교과목 학원 등록률은 부원초의 약 두 배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증감 폭에서는 일신초의 경우 7.1퍼센트 감소한 반면 부원초의 경우 오히려 1.4퍼센트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일신초와 부원초의 교과목 학원 등록 수 차이가 줄어든 것을 곧 교육불평등 감소로 해석하기는 힘들다. 노혜진(2014)의 연구에 따르면 돌봄의 양극화는 기본 돌봄, 놀이, 교육, 관리로 분류할 수 있으며, 고학력 동질혼 부부의 자녀 돌봄 시간은 하루 평균 171분으로, 이 수치는 저학력 동질혼 부부보다 무려 100분 정도 길다. <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 학교 학부모의 교육 수준은 높은 가격의 주택지역일수록 더 높았다. 코로나 19 이후 확대된 온라인 수업은 기존 수업만큼의 학습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초등학생 돌봄 시간의 상당 부분을 학부모 역할에 의지했다. 이는 공교육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자기 주도 학습 능력과 함께 부모의 교육 수준 차이가 계층별 교육격차를 더 강화

〈표 9〉 학교별 코로나19 전후 학원 등록 수 증감

학교	빈도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평균 증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일신초	84	3.61	1,280	3.40	1,345	-0.21
창영초	292	3.57	1,235	3.11	1,303	-0.46
부원초	72	2.24	1,028	2.00	0,979	-0.24
전체	448	3.36	1,307	2.99	1,339	-0.37

주: 빈도는 응답 대상 학생 수, 평균은 1인당 학원 등록 수.

〈표 10〉 학교별 코로나19 전후 교과목 관련 학원 등록 수 증감

학교	총 빈도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증감 비율 (%)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일신초	84	73	86.9	67	79.8	-7.1
창영초	293	232	79.2	223	76.1	-3.1
부원초	72	29	40.3	30	41.7	1.4
전체	449	334	74.4	320	71.3	-3.1

주: 총 빈도는 응답 대상 학생 수, 빈도는 응답 대상 학생 중 교과목 학원 등록생 수.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영향은 〈표 12〉의 코로나19 이후 학습 시간이 증가 여부에 대한 응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고소득층 주거지역 학생일수록 학습시간 감소폭이 작았다. 일신초의 경우 52.4퍼센트 학생이 코로나19 이후 공부시간이 오히려 늘었다고 답했지만, 부원초의 경우 72.9퍼센트 학생이 공부 시간이 줄었다고 답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계층별 초등학교의 학습시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3〉을 보면 코로나19 전후 모두에서 일신초가 부원초보다 가정방문 학습 비율이 2.5배 이상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감소폭에 대해서는 학교별 차이가 크다. 일신초의 경우 감소폭이 19퍼센트인 반면 부원초의 경우 5.6퍼센트에 그쳤다. 이는 학교별 교과목 학원 등록 수 감소폭이 비슷한 현상이다. 코로나19 전후 사교육에 대한 거주지별 차이는 고

〈표 11〉 학교별 통학구역 내 학부모 교육정도 차이

교육정도별	일신초 통학구역 (범박동)		창영초 통학구역 (괴안동, 소사본3동)		부원초 통학구역 (소사본동)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받지 않음(미취학 포함)	403	1,8%	1,218	2,4%	588	2,6%
초등학교	2,744	12,5%	6,058	11,8%	2,983	13,0%
중학교	1,744	8,0%	5,235	10,2%	3,028	13,2%
고등학교	6,020	27,5%	16,950	33,1%	8,053	35,1%
대학교(2,3년제)	3,196	14,6%	8,054	15,7%	3,047	13,3%
대학교(4년제 이상)	6,630	30,3%	12,191	23,8%	4,599	20,0%
대학원(석박사 과정)	1,162	5,3%	1,523	3,0%	667	2,9%
합계	21,899	100%	51,229	100%	22,965	100%

출처: 통계청, 2015년 인구총조사 표본조사.

〈표 12〉 학교별 코로나19 전후 학습시간 증감

		늘었다	줄었다	합계
일신초	빈도	44	40	84
	비율	52,4%	47,6%	100%
창영초	빈도	139	153	292
	비율	47,6%	52,4%	100%
부원초	빈도	19	51	70
	비율	27,1%	72,9%	100%
합계	빈도	202	244	446
	비율	45,3%	54,7%	100%

소득층 거주지 학생일수록 학습 시간이 증가하고 학원과 가정방문 학습은 감소한 반면, 저소득층 거주지 학생일수록 학습 시간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학원과 가정방문 감소 비율이 낮은 편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초등학생의 사설학원 및 가정방문 학습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졌다. 계층별 교과목 학원 등록 수와 가정방문 학습의 폭도 감소하였다. 하지만 이것이 곧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줄어든 현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코로나19 이후 학원 수 증가 차이와 달리 학습시간은 부유한 지역의 학생이

〈표 13〉 학교별 코로나19 전후 가정방문 학습 증감

학교	총 빈도	코로나 이전 학습여부		코로나 이후 학습여부		증감비율
		빈도(예)	비율	빈도(예)	퍼센트	
일신초	84	39	46.4%	23	27.4%	-19.0%
창영초	293	119	40.6%	87	29.7%	-10.9%
부원초	72	12	16.7%	8	11.1%	-5.6%
합계	449	170	37.9%	118	26.3%	-11.6%

오히려 증가한 것을 보면, 온라인 학습환경으로의 변화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의존도와 부모의 교육 정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학습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키우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부원초 학생들의 교과목 관련 학원 등록 수가 오히려 늘어난 이유는 공교육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력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을 학원 등 사교육에 더 의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표 17〉와 〈표 19〉에서 볼 수 있듯이 부원초 학부모는 일신초에 비해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계층 간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저소득층 학부모의 자녀 돌봄과 사교육에 대한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저소득층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의 증가와 학력격차의 강화는 방역만을 1순위에 두는 공교육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 4. 코로나가 게임시간, 부모관계, 놀이시간에 미친 영향

##### 1) 게임시간

코로나19 이후 초등학교의 온라인 수업과 혼자 있는 시간의 증가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이용한 게임 시간을 증가시키고, 이는 학업성취도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과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8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초등학교 4~6학년 및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게임 과몰입 종합

〈표 14〉 학교별 하루 동안의 게임시간 분석

		안함	30분	1시간	1시간 30분	2시간	3시간	4시간 이상	전체	평균* (분)
일신초	빈도	15	19	14	18	4	5	9	84	78
	비율	17.9%	22.6%	16.7%	21.4%	4.8%	6.0%	10.7%	100%	
창영초	빈도	41	36	59	34	53	35	34	292	105
	비율	14.0%	12.3%	20.2%	11.6%	18.2%	12.0%	11.6%	100%	
부원초	빈도	1	10	12	7	11	14	17	72	110
	비율	1.4%	13.9%	16.7%	9.7%	15.3%	19.4%	23.6%	100%	
합계	빈도	57	65	85	59	68	54	60	448	102
	비율	12.7%	14.5%	19.0%	13.2%	15.2%	12.1%	13.4%	100%	

주: '4시간 이상'의 경우 단순 4시간으로 계산한 평균값.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 전체의 76.9퍼센트가 게임을 하고 있으며 게임 과몰입의 비중은 고등학생보다 중학생, 초등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초등학생들의 게임중독이 만들어내는 피해는 매우 다양해 정서적으로 우울, 불안 등을 유발하고 신체적으로는 불면증과 소화기 장애를 비롯한 각종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권선중 외, 2005). 특히 모바일 중독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4~5학년이 비해 6학년이 현저하게 높은 비율로 나타나며, 학교생활 적응 및 일상생활 장애, 학업 수행 능력과 아동의 공격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최진오 2016; 이철현·정계환 2005).

설문조사 결과 현재 세 학교 응답자 중 12.7퍼센트는 게임을 하지 않으며 하루 4시간 이상 게임을 하는 학생의 전체의 13.4퍼센트였다. 세 학교 학생의 하루 평균 게임시간은 1시간 42분이었다(이는 '4시간 이상'을 단순 4시간으로 계산한 결과로 실제 평균 시간은 그 이상으로 볼 수 있다).

학생들의 하루 동안 게임시간은 세 학교 사이에서 차이를 보였다. 고급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일신초의 경우 게임을 안 하거나 1시간 30분 이하로 하는 경우 78.6퍼센트로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부원초의 경우는 43.9퍼센트였다. 3시간과 4시간 이상의 비중도 부원초가 일신초에 비해 2.5배 더 높았다. 하루 평균 게임시간은 일신초가 1시간 18분이었으며, 창영초는 1시간 45분,

〈표 15〉 학교별 코로나19 이후 게임시간 증가

		같다	30분 증가	1시간 증가	2시간 이상 증가	30분 감소	1시간 감소	2시간 이상 감소	전체	평균 증감* (분)
일신초	빈도	45	21	10	2	3	2	1	84	14
	비율	53.6%	25.0%	11.9%	2.4%	3.6%	2.4%	1.2%	100%	
창영초	빈도	181	41	35	7	15	11	2	292	10
	비율	62.0%	14.0%	12.0%	2.4%	5.1%	3.8%	0.7%	100%	
부원초	빈도	32	8	9	14	3	4	2	72	26
	비율	44.4%	11.1%	12.5%	19.4%	4.2%	5.6%	2.8%	100%	
합계	빈도	258	70	54	23	21	17	5	448	13
	비율	57.6%	15.6%	12.1%	5.1%	4.7%	3.8%	1.1%	100%	

주: '2시간 이상 증가'와 '2시간 이상 감소'를 2시간으로 단순 계산한 결과.

부원초는 1시간 54분이었다. 하지만 '4시간 이상'을 단순 4시간으로 계산했고, 부원초의 '4시간 이상' 응답 비율이 다른 두 학교의 두 배를 넘는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실제 격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하루 '4시간 이상' 게임은 게임중독에 따른 학업 수행과 신체 병리 증상이 우려된다(전은미 외 2006). 부원초의 경우 장시간 게임에 따른 학생들의 건강과 학업 방해의 우려가 심각하며 그 위험도는 다른 두 학교 학생들에 비해 훨씬 높다.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이후 세 학교 학생의 게임시간은 모두 증가했다. 세 학교 평균 57.6퍼센트의 학생은 코로나 이후에도 게임시간에 변화가 없었다. 평균 게임시간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32.8퍼센트로 감소는 9.6퍼센트에 비해 23.2퍼센트 더 높았다. '2시간 이상 증가'와 '2시간 이상 감소'를 단순 2시간으로 계산 시, 전 학교 평균 증가 시간은 13분이다. 거주 환경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데 일신초는 14분, 창영초는 10분, 부원초는 26분이 증가해, 일신초 대비 부원초가 두 배 가까이 더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 19 이후 초등학교의 게임시간 증가가 저소득층 가정에 더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시간대별 특성을 보면 일신초의 경우 시간의 증가가 대부분 30분에서 1시

간 증가에 몰려 있고, 부원초의 경우 증가가 1시간과 2시간 이상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2시간 이상 증가의 경우 부원초와 창영초는 2.4퍼센트인 반면 부원초는 19.4퍼센트에 이른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으로 초등학교의 게임시간이 증가했으며,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초등학교의 증가 폭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성옥(2005)의 연구에 따르면 성적의 상위 20% 이내인 학생들은 컴퓨터 게임을 자주 하면서도 자제력을 잃지 않고 1~2시간 이내에 마치는 반면, 하위 20% 이내인 학생들은 한 번 게임을 시작하면 3시간 이상 계속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다. 코로나19로 인한 초등학교의 게임시간 증가는 특히 저소득층 주거지역 학생들의 성취도와 생활에 더 큰 위협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특이한 결과는 게임시간이 감소했다는 부원초의 응답이 12.5퍼센트로 일신초의 7.1퍼센트 보다 높다는 것이다. 인터뷰를 통해 부원초 학생에게 확인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학부모와 함께 있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기존의 제한이 없던 게임시간에 대해 부모의 제재가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일신초의 경우는 코로나19 이전의 게임시간이 대부분 1시간 30분 이하여서 부모와의 시간 증가가 게임시간 감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적은 것으로 보인다. 게임시간 증가와 관련한 서술형 답변 내용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 할 게 없어서 게임만 하게 되어 머리가 안 좋아짐. \_ 창영초 5학년 여학생  
 엄마가 불쌍하다고 게임시간을 늘려주었다. \_ 일신초 6학년 여학생  
 급한 일 아니면 집에 항상 있어야 하고 친구랑 못 노니까 동생이랑 놀고, 동생이 학교 가면 혼자 공부해야 하고, 게임해야 한다. \_ 창영초 5학년 남학생  
 할머니 집에 가면 게임 24시간. \_ 창영초 3학년 남학생  
 이전에는 하루 종일 게임했는데 코로나 이후 엄마와 함께 있어서 게임시간이 줄었다. \_ 부원초 5학년 남학생

## 2) 부모와 관계 개선

코로나19가 초등학생의 학습과 생활에 미친 영향이 모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동안 거론되었지만 실행하지 못했던 농촌이나 산간지역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의 온·오프라인 교육 방식이 도입된 것이다. 한국 공교육의 '포스트 코로나' 방향이 소외계층의 교육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방식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등교수업의 제한, 외부활동 제한, 학원 수 감소 등으로 코로나19 이후 초등학생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했으며, 이는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켰다. 이는 세 학교 설문조사 결과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세 학교 초등학생에게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서 보내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대부분 학생인 84.6퍼센트가 집 안이라고 답했다. 할머니 집, 집 주변, 학원, 친구 집 등으로 답한 학생은 소수였다. 학교별 차이점으로는 일신초 학생이 부원초 학생에 비해 집에 머무른 비율이 더 높았다. 이는 넓은 고급 주택지의 집안 공간이 아동의 학습과 생활에 더 많은 공간을 할애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부원초의 경우 할머니 집과 친구 집에 낮 시간 머무른다는 비율이 다른 두 학교에 비해 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길다는 것이 곧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집에 있을 때 보통 누구와 함께 있나요?'라는 단수 선택 질문에 집에 혼자 있다는 응답은 12.8퍼센트, 가족과 함께 있다는 응답은 나머지 87.2퍼센트였다. 그 중 부모님과 함께 있다는 응답은 59.5퍼센트로 학교별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조부모와 함께 있는 비율은 저소득층 거주지역으로 갈수록 증가했다. '그 외' 항목에는 1명을 제외한 모두가 형제나 자매와 집에 있다고 답했는데, 부원초의 비율이 나머지 두 학교의 비율보다 낮다. 이는 부원초의 경우 조부모와 함께 있는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집에 혼자 있다는 비율은 세 학교 모두 11퍼센트 이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6〉 학교별 낮 시간 보내는 장소 설문결과

		집안	할머니집	집주변	학원	친구집	그 외*	합계
일신초	빈도	74	0	3	3	1	3	84
	비율	88.1%	0.0%	3.6%	3.6%	1.2%	3.6%	100%
창영초	빈도	254	11	7	12	3	6	293
	비율	86.7%	3.8%	2.4%	4.1%	1.0%	2.0%	100%
부원초	빈도	52	6	4	4	4	2	72
	비율	72.2%	8.3%	5.6%	5.6%	5.6%	2.8%	100%
합계	빈도	380	17	14	19	8	11	449
	비율	84.6%	3.8%	3.1%	4.2%	1.8%	2.4%	100%

주: '그 외'에 엄마회사, 돌봄놀이터, 이모집 등이 기록됨.

〈표 17〉 학교별 집에 머물 시 함께 있는 대상

		부모님	조부모	혼자	그 외* (형제/자매)	합계
일신초	빈도	53	3	10	18	84
	비율	63.1%	3.6%	11.9%	21.4%	100%
창영초	빈도	171	22	39	59	291
	비율	58.8%	7.6%	13.4%	20.3%	100%
부원초	빈도	42	12	8	10	72
	비율	58.3%	16.7%	11.1%	13.9%	100%
합계	빈도	266	37	57	87	447
	비율	59.5%	8.3%	12.8%	19.5%	100%

주: '그 외' 항목에 1명을 제외한 86명 모두 형제나 자매라고 답함.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3~6학년 초등학생이 성인 보호자 없이 낮에 집에 있는 비율이 32.3퍼센트였으며, 그 중 아동이 혼자 있는 비중도 12.8퍼센트에 달했다. 이 비율은 부모의 부(wealth)의 차이와 관계없이 11퍼센트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상당수의 초등학생이 일상생활에서 어른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정부 및 공교육은 방역에만 역점을 두고 있어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는 적절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학생들에 대해 ‘긴급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긴급돌봄은 등교수업이 아닌 날에도 학교에 등교해 오전 온라인 수업 지도, 점심 제공, 각 학교에서 마련한 오후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는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가정의 아동에게 점심, 안전, 학습권 보장 등의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연구자가 정부의 공개정보포털에 요청해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은 답변에 의하면(접수번호 6999137), 7월 6일, 7월 13일, 7월 20일, 7월 27일 세 학교의 긴급돌봄 이용 학생 비율은 평균 6퍼센트 이하로 소수의 학생만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참여 학생은 대부분 1학년과 2학년이었으며, 3학년 이상 학생들은 그 비율이 2.4퍼센트 이하로 더 낮다. 긴급돌봄 참여율은 세 학교 간에도 차이가 있다. 창영초의 참여 비율은 부원초와 일신초보다 현격히 낮다. 창영초의 경우 3학년 이상 학생 628명 중 긴급돌봄에 참여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학교에 확인 결과 7월 당시 창영초 고학년 긴급돌봄 프로그램은 담임선생님과 교실에서 함께 있는 것이다. 학부모들에게는 긴급돌봄과 관련된 알림이나 공지는 없었으며, 개인적으로 문의 시에만 답변을 들을 수 있다. 긴급돌봄의 실질적 운영 상황은 학교별로 차이를 보이며, 낮 시간 자녀를 돌볼 수 없는 학부모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코로나19가 초등학생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중 하나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부모와의 관계가 개선된 점이다. <표 16>을 보면 코로나19 이후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는지’에 세 학교 평균 61.9퍼센트가 늘었다고 대답했다. 학교 간 차이를 보면 모든 학교에서 절반 이상의 학생이 늘었다고 답했으며, 고급 주택지역 학교의 학생일수록 증가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코로나19 이후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의 증가가 부모와의 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었는지 묻는 질문에 ‘좋아졌다’는 응답 비율이 ‘싫어졌다’의 경우보다 높았다. 코로나19 이후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응답은 43.7퍼센트로 ‘싫어졌다’는 답변 3.6퍼센트에 비해 12배 높았다. 또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표 18〉 학교별 코로나19 이후 긴급돌봄 참여학생 현황

학교명	전학년 학생 수	3~6학년 학생 수	오전 참여 학생 수	오후 참여 학생 수	전교생 중 참여 비율*	3-6학년 참여 학생 수	3-6학년 중 참여 비율
부원초	395	224	13.0	23.8	6.0%	3.0	1.3%
창영초	916	628	7.3	17.0	1.9%	0.0	0.0%
부천일신초	1,062	730	60.0	44.0	5.6%	17.8	2.4%

주: 오전, 오후 참여 학생 수 중 더 큰 값을 적용.

〈표 19〉 학교별 코로나19 이후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 증가

			부모님과 시간 증가		합계
			예	아니요	
학교	일신초	빈도	56	28	84
		비율	66.7%	33.3%	100%
	창영초	빈도	178	110	288
		비율	61.8%	38.2%	100%
	부원초	빈도	40	31	71
		비율	56.3%	43.7%	100%
합계		빈도	274	169	443
		비율	61.9%	38.1%	100%

증가한 경우 중 관계도 ‘좋아졌다’는 응답은 59퍼센트로 ‘싫어졌다’는 응답 2.2퍼센트보다 월등히 높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 이후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의 증가가 가족 간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된다.

의외의 결과로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줄었음에도 관계가 좋아진 경우가 18.9퍼센트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부모와의 관계 개선 요인이 성별, 학교, 학년, 학원 수 증감, 주변 놀이공간의 존재 여부 등 복합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코로나19 이후 초등학생의 야외 활동이 제한을 받았다. 하지만 대부분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는 전국 국립공원야영장 캠핑장 예약현황을 보면 공휴일과 주말 전후 예약이 만료한 것으로 확인된다(2020년 8월 7일 기준). 코로나19

〈표 20〉 코로나19 이후 부모와 보내는 시간 증감과 관계 개선의 연관성

			부모 관계			합계
			좋아졌다	같다	싫어졌다	
부모와 보내는 시간	늘었다	빈도	161	106	6	273
		비율	59.0%	38.8%	2.2%	100%
	줄었다	빈도	32	127	10	169
		비율	18.9%	75.1%	5.9%	100%
합계		빈도	193	233	16	442
		비율	43.7%	52.7%	3.6%	100%

〈표 21〉 학교별 코로나19 이후 부모와 여행 증가 여부

		늘었다	줄거나 변화없다	합계	
일신초	빈도	11	73	84	
	비율	13.1%	86.9%	100%	
창영초	빈도	29	264	293	
	비율	9.9%	90.1%	100%	
부원초	빈도	7	64	71	
	비율	9.9%	90.1%	100%	
합계		빈도	47	401	448
		비율	10.5%	89.5%	100%

가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을 늘려 가족 여행의 기회를 오히려 증가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에 세 학교 평균 89.5퍼센트가 ‘부모와의 여행 시간이 코로나19 이후 줄었다’라고 답했다. 증가한 경우는 평균 10.5 퍼센트였다. 코로나19 이후 부모와 보내는 시간은 늘었지만 부모와 함께 야외활동의 시간은 크게 증가하지 않거나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늘었다’는 응답에 대한 학교별 차이는 양호한 주거지역의 학생일수록 비율이 높았다.

코로나19 이후 부모 및 가족과의 관계 개선은 서술형 답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좋은 점에 대해 서술형 답변에 “집에 있어서”,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서”라는 서술이 각각 전체 응답자의 약 20퍼센트에 달한다. 서술형 질문 방식이 빈칸에 응답자의 의지를 가지

〈표 22〉 코로나19가 생활에 미친 장점과 단점 서술형 답변 결과

	순위	내용	빈도	전체 대비 비율(%)
좋아진 점	1	집에 있어서	79	20.1
	2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78	19.8
	3	부모님(가족)과 시간을 보내서	66	16.8
	4	학교에 매일 가지 않아서	56	14.2
	5	없음(직접 기록한 경우)	42	10.7
	6	잠을 더 잘 수 있어서	37	9.4
	7	학원 가는 시간이 줄어서	24	6.1
	8	게임을 더 할 수 있어서	19	4.8
	9	미세먼지가 없어서	11	2.8
	10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서	8	2.0
나빠진 점	1	마스크를 껴야해서	126	32.1
	2	친구를 만나지 못해서	118	30.0
	3	밖에 나가지 못해서	90	22.9
	4	여행을 가지 못해서	83	21.1
	5	온라인 수업이 도움이 안 돼서	63	16.0
	6	학교에 가지 못해서	44	11.2
	7	할 일이 없어 지루해서	26	6.6
	8	게을러져서	15	3.8
	9	공부에 집중할 수 없어서	14	3.6
	10	감염될까 두려워서	10	2.5

고 직접 서술해야 한다는 것으로 고려하면 더 많은 비율의 학생들이 부모와의 시간 증가와 관계 개선을 코로나19 이후에 좋아진 점으로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또 다른 긍정적인 변화는 학생들이 충분한 수면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좋은 점을 적는 서술형 질문에 “잠을 더 잘 수 있어서”라는 서술이 전체의 9.4퍼센트로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 초등학생은 평균적으로 아침 7시 22분에 일어나 밤 10시 41분에 잠자리에 들어, 총 8시간 41분 수면시간을 가졌으며, 이는 미국 수면재단이 권장하는 초등학생 수면시간 10~11시간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한국청소년연구원, 2019). 코로나19 이전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 청소년 7343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초등학생 24.4퍼센트는 수면 부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Byun, 2017). 코로나19 이후 등교 시간에 대한 부담이 줄고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시간적 자율성은 학생들에게 충분한 수면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반면 서술형 질문의 코로나19 이후 나빠진 점에 대한 서술 중에는 “할 일이 없어 지루하다”, “게을러졌다”,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다” 등 자율적인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로 보이는 응답도 55번 서술되었다. 가족과의 관계와 개인 생활에 대한 서술형 답변의 구체적 사례는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집에 혼자만 있어서 외롭고 심심하다. \_ 창영초 5학년 남학생

가족들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다. \_ 창영초 5학년 여학생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 좋았다.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깨닫게 된 것 같다. \_ 일신초 6학년 여학생

전에는 하루 종일 오락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엄마가 집에 있어서 마음껏 할 수가 없어요. \_ 부원초 6학년 남

### 3) 외부활동 금지와 심리적 영향

〈표 16〉과 〈표 21〉에서 살펴보았듯이 코로나19 이후 초등학생들이 실외에서 활동하는 시간은 줄고 집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었다. 2020년 1월부터 장기간 이어진 생활의 변화는 초등학생들의 건강과 심리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술형 답변에서 코로나19의 단점에 대해 “집에서 할 게 없다. 살이 많이 찼다(창영초 5학년 여)”는 답변의 빈도수가 11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살이 찼다’고 직접 기술한 학생의 성별은 대부분 여학생이었다. 이광현(2014)의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생의 비만이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과체중의 경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게서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활동 감소가 초등학생의 발육과 비만에, 장기적

〈표 23〉 학교별 코로나19 이후 친구와 노는 시간 증감 여부

		늘어남	줄어듦	합계
창영초	빈도	72	221	293
	비율	24.6%	75.4%	100%
부원초	빈도	19	53	72
	비율	26.4%	73.6%	100%
일신초	빈도	24	60	84
	비율	28.6%	71.4%	100%
합계	빈도	115	334	449
	비율	25.6%	74.4%	100%

으로는 학업성취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친구와 노는 시간이 증가했냐는 질문은 세 학교 평균 25.6 퍼센트가 늘었다고 답한 반면, 74.4퍼센트는 줄었다고 답해 놀이시간의 감소 폭이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세 학교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코로나19가 초등학생들의 또래 문화와 놀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 또래 문화와 놀이시간의 부재는 학교 등교수업에서도 나타난다. 창영초 4학년 학생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교실 내에서 친구들과의 대화나 놀이가 제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쉬는 시간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 친구들과 이야기해도 안 된다. 코로나 이전에는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운동장이 전쟁터처럼 바글바글했는데 지금은 한 명도 없다. 한 학기가 지났지만 새로운 친구와 한 번도 말을 해본 적이 없다. 마스크를 항상 끼고 있어 얼굴도 정확히 모른다. 3학년 때 알던 친구와는 손 인사를 한다. 한 학기 동안 딱 한 번 10분 동안 운동장에 나가봤다. 담임선생님께서 반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뛰어서는 안 되고 이야기하는 것은 못했다. 이때 딱 한 번 이미 알던 친구와 이야기를 했다. \_ 창영초 4학년 남

집주변 외부에 놀이공간이 존재하는 여부를 묻는 질문에 세 학교 학생들의 답변에 70.1퍼센트는 있다, 29.9퍼센트는 없다고 답했다. 세 학교 간 비

〈표 24〉 학교별 집 주변 놀이공간 존재 여부

		놀이공간 있다	놀이공간 없다	합계
일신초	빈도	52	4	56
	비율	92.9%	7.1%	100%
창영초	빈도	191	86	277
	비율	69.0%	31.0%	100%
부원초	빈도	41	31	72
	비율	56.9%	43.1%	100%
합계	빈도	284	121	405
	비율	70.1%	29.9%	100%

올에는 유효한 차이가 있었다.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심에 위치한 일신초 학생 중 92.9퍼센트는 집 주변에 놀이공간이 있다고 답한 반면, 오래된 단독주택 거주지에 위치한 부원초의 경우 56.9퍼센트만이 ‘그렇다’라고 답했다.

거주지 주변 놀이공간 차이는 주거 유형과 준공 시기에 따라 기본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10여 년 전 준공한 일신초 근처 힐스테이트 아파트 단지의 경우 단지 내에 바닥이 포장되어 있는 질 높은 놀이터가 곳곳에 있다. 창영초 주변 30여 년 전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는 포장되지 않은 오래된 놀이터가 단지 내에 있으며, 한두 개 동으로 독립된 아파트의 경우 놀이터가 없는 곳이 많다. 그나마 오래된 아파트에 있던 놀이터의 상당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시의 허가를 받아 주차장으로 바뀌었다. 30년 이상 오래된 주택과 빌라가 밀집한 부원초 주변 주거지의 경우에는 놀이 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부원초 학생들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놀이 공간이 있다고 답한 학생들도 “(학교에서 약 750미터 떨어진) 큰길 건너편에 있는 푸르시오, SK 아파트 놀이터를 동생들과 함께 옮겨 다니면서 놀아요(부원초 4학년 여)”, “집 앞 주차장에서 놀아요(부원초 3학년 남)”로 답하는 등 놀이공간의 안전성과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거주 장소에 따른 놀이공간의 차이는 단지 내 시설 시설뿐 아니라 주변 공공 공원의 경우에서도 나타난다. 일신초 근처 힐스테이트 아파트 단지의 경우 학교 주변 350미터 이내에 공공 공원이 4곳이 있다. 이 공원들은 대부분

〈표 25〉 일신초와 부원초 인근 공공 공원 현황

	공원명	학교에서 거리(m)	면적 (m <sup>2</sup> )	주요 시설
일신초 인근	괴안체육공원	340	10,075	인라인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웃고안근린공원	260	27,477	수목 산책로
	바람개비공원	346	1,520	포켓 공원, 쉼터
	목일신근린공원	163	18,899	미끄럼틀, 그네, 야외공연장, 산책로
	소계		59,591	
부원초 인근	윗소사어린이공원	440	2,800	미끄럼틀, 그네, 포장바닥
	성주산생활체육공원	320	25,225	유료 축구장, 회원제 테니스/배드민턴장, 놀이터, 공연장, 산책로
	소계		28,025	

신도시가 조성되는 시기를 전후해 개장했다. 이에 반해 부원초 근처 단독주택단지 주변에는 학교에서 440미터 떨어진 곳에 포켓 공원인 윗소사어린이공원과 성주산 아래 생활체육공원이 유일하다.

놀이공간의 규모 및 질에서도 두 지역은 차이를 보인다. 힐스테이트 주변 공원의 경우 바닥이 포장되어 있고 인라인 스케이트장, 바람막이가 설치된 배드민턴장, 농구장, 놀이터 등이 있다. 이에 비해 부원초 근처 윗소사어린이공원의 경우 지하 공공주차장 상부를 이용해 공원을 조성했으며 경로당과 공립어린이집 건물 사이 미끄럼틀과 그네 등 작은 놀이공간이 있다. 성주산 밑 생활체육공원은 면적은 넓지만 대부분 시설이 유료나 회원제로 운영되며,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는 외진 공간에 포장되지 않은 모랫바닥 위 그네와 미끄럼틀을 설치한 것이 전부이다.

코로나19는 초등학교생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은 외부뿐 아니라 실내 및 공공시설에도 영향을 미쳤다. 소사구 내 초등학교생이 이용할 수 있는 대부분 공공시설은 2월 초부터 운영이 중지 또는 제한되었다. 수영장, 체육관, 북카페, 체험장, 노래방 등의 시설을 갖춘 소사구민체육센터와 소사청소년수련관의 경우 감염 확진자의 수가 잠시 줄었던 8월 초 2주간을 제외한 2월 24일부터 8월 21일 현재까지 6개월 간 운영이 중지되었다.<sup>5)</sup> 소사구 내 시립도

〈표 26〉 코로나19 이후 부천시 소사구 공공시설 이용금지 및 제한 현황

시설명	시설	운영 현황*
소사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등	수영장 2/24~현재* 이용금지, 8월초 헬스장 등 제한운영 후 8/15부터 중지
소사청소년수련관	북카페, VR 체험, 노래방, 체육관 등	2/7~7/23, 8/15~현재 운영중지
소사한울빛도서관	도서자료실, 열람실, 시청각실 등	2/27~8/2 이용금지(4/10~예약대출 가능), 8/19~현재 이용금지
소사대공원	바닥분수, 물놀이 시설, 놀이터	출입제한 없음, 물관련 시설 미운영, 음수대 제한 사용

주: 2020년 8월 19일 기준.

서관도 2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이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 도서관의 경우 전면 금지가 2개월 이상, 온라인을 통한 도서대출 신청 후 입구에서 수령 혹은 의자에 앉지 않고 도서를 선별 후 대출하는 제한적 이용이 그 외 기간에 적용되었다. 정보공개포털 요청에 따른(접수번호 6999151) 부천시 체육진흥과의 답변에 따르면 소사대공원의 경우 출입에는 제한이 없지만 물놀이 시설과 바닥분수는 미운영되었고 급수대의 경우 5월까지 금지, 이후 순차적으로 허용되었다. 필자가 7월 22일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소사대공원의 농구장 및 족구장 주위에는 노란색 금지줄이 둘러 있어 이용이 금지되어 있었다.

코로나19 이후 초등학생들은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고 친구와 함께 있는 시간이나 외부 활동 시간이 줄었다. 코로나19 이후 짜증과 무기력 증 등 감정기복이 심해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코로나 블루’가 성인뿐 아니라 아동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으며, 광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지진, 홍수 등 재난상황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몇 년 후 나타나는 것처럼 아동형 코로나 블루는 잘못된 습관이나 만성적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이성희, 2020). 거주지 주변 놀이공간의 마련은 초등학생의 건강

- 5) 2020년 8월 21일 필자가 전화를 통해 확인한 결과 소사구 내 시설 수영장인 ‘아쿠아마린’은 코로나19 이후 현재까지 정상 운영중이다. 이 수영장의 초등학생 주1회 1시간 기준 강의료는 14만원이다.

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산림활동은 건강 상태와 관련된 삶의 질을 높이며 우울증 증상 개선에 도움을 주며(우종민 2012), 숲 체험 프로그램은 아동의 사회성 향상과 우울증 감소에 도움을 준다(조영민 2011). 코로나19 이후 야외활동 감소로 인한 심리적 영향은 서술형 답변에서 ‘피곤하다’, ‘심심하다’, ‘우울하다’는 표현이 자주 나타났다.

설문 결과에 의하면 고급 주거지역의 아동보다 오래된 주택가의 아동들이 안전하고 접근성이 있는 놀이공간의 확보가 보장되지 못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반복되는 어린이를 위한 공공시설의 운영 중지 및 제한이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아동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술형 답변 중 놀이공간과 심리적 상태를 파악해 주요 답변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친구들 못 만남. 집에 할 게 별로 없음. 잠을 오히려 더 못 잠. 피곤함. 우울함. \_ 일신초 6학년 남학생

친구들과 못 놀. 여행을 못 감. 외식을 못 함. 집에만 있는 경우가 많아 우울하다. \_ 창영초 6학년 여학생

친구들과 웬만하면 밖에 나가 노는데 어른들이 못 나가게 한다. \_ 부원초 4학년 남학생

마스크. 여행. 학교가기. 아무튼 짜증나고 열받음. \_ 창영초 5학년 여학생

## 5. 결론

부천시 소사구 세 학교의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한 연구에서 코로나19 이후 정책과 상황이 초등학생의 학습과 게임시간, 부모와 관계, 놀이시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했다. 온라인 수업의 경우 내용 구성, 수업 시간, 학습효과, 흥미 모든 면에서 미약하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 중 높은 가격 주택지인 일신초 학생들이 다른 학교에 비해 온라인 수업의 집중도와

학습효과가 높게 나타나 계층별 학력 격차가 강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코로나19 이후 학원 등록 수와 가정방문 학습은 모두 감소했으며, 가정의 학습 및 돌봄 시간 증가는 부모의 교육정도에 따른 자녀의 학습격차를 키우고 저소득층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증가시켰다.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는 주택지역의 학부모일수록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코로나19 이후 계층별 학력 격차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는 초등학생의 게임시간과 놀이시간에도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이후 세 학교 모두에서 게임시간은 증가했다. 특히 낮은 주택 가격 지역의 학생일수록 증가 폭이 컸으며, 부원초의 경우에는 게임 중독의 위험이 있는 하루 4시간 이상 장시간 게임이 다른 학교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았다. 놀이공간의 경우에도 높은 가격의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 비해 오래된 저소득층 지역의 학생들은 놀이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대부분 공공시설이 운영되지 않아 놀이공간에 대한 계층별 격차가 더욱 심해졌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상당수의 초등학생들이 부모나 성인의 보호 없이 낮 시간 집안이나 외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정부와 교육청은 더 이상 공교육의 역할을 학부모의 책임으로 미루어서는 안 되며, 체계적인 온라인 수업의 도입과 개선된 등교수업의 병행, 통합 돌봄센터 마련 등의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와 온라인 수업의 도입은 초등학생의 생활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도 미쳤다. 다양한 수업 방식과 내용의 도입은 고급 주택지역 학생들 보다는 저소득층 초등학생들에게 더 흥미를 유발해 새로운 수업방식 도입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초등학생들이 가정에 머무르면서 충분한 수면과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특히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모든 계층의 초등학생들이 부모와 관계가 개선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코로나19 이후 초등교육 정책에 대해 ‘방역만 성공하고 교육은 실패’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박진우, 2020). 코로나19 이후 계층 간 벌어지는

학력 격차, 낮 시간 아이들의 안전, 저소득층 부모의 자녀 학업에 대한 부담 증가, 아이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저소득층 학생의 점심 제공 등을 고려한다면 초등교육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준비는 온·오프라인의 교육방식 병행뿐 아니라 교사와 학생의 관계, 또래 문화 형성을 위한 자유로운 활동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퍼트넘(2016)은 ‘우리는 특권이 부여되지 않은 아이들의 곤궁함에 대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게 공감하고 있다’고 말한다. 성인에게 의존적인 초등학생은 자신의 의견을 스스로 대변하기 힘들다. 특히 열악한 주거지역의 초등학생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외되기 쉽다. 시급히 코로나19로 인한 초등학생의 건강 및 심리상태 연구, 등교수업과 온라인 수업의 개선, 저소득층을 위한 영양 공급, 계층 간 동등한 놀이 공간 확충, 통합적 돌봄센터 설립 등 정책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원고접수일: 2020.08.26

심사완료일: 2020.09.10

게재확정일: 2020.11.04

최종원고접수일: 2020.11.04

Abstract

The Impact of COVID-19 on Elementary Education at  
Three Schools in Bucheon City, Korea

Lee, Sihyo

This research addresses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education, game, child-parent relationship, and playing space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researcher surveyed 449 elementary school children from three schools in different living conditions in the Sosa district of Bucheon City, Korea. The results of the research indicate that since COVID-19 appeared, online classes have been insufficient for including various content, retaining students' concentration and interest, and producing an educational effect. For students living in poorer conditions, the educational effect of online classes has been even worse. Elementary school children's educational discourse, according to the classes with living conditions, is maintained through private educa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Concerning schoolroom classes during COVID-19, students' interaction with their teachers and friends has decreased significantly. Since the time children spend with their parents has increased due to COVID-19, family relations have improved. However, game use time has increased by 13 minutes. Moreover, the rate of children living without adult supervision during the day is now 32.3%, and the recreational space in the areas with poor living conditions is unprepared for this change.

**Keywords:** COVID-19, elementary school, education, space, inequality

## 참고문헌

- 구성옥·맹승렬·유관희. 2005. 「컴퓨터 게임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연구」. 《한국컴퓨터교육학회》, 제8권 제4호, 79-86쪽.
- 권선중·김교현·이홍석. 2005. 「아동의 컴퓨터 게임 중독과 신체 증상: 불안의 매개효과」. 《한국조사연구학회》, 제6권 2호, 33-50쪽.
- 노혜진. 2014. 「부모의 교육적 동질함에 따른 자녀 돌봄시간의 불평등」. 《사회복지정책》, 제41권 4호, 181-200쪽.
- 솔닛, 레베카(Rebecca Solnit). 2012. 『이 페허를 응시하라: 대재난 속에서 피어나는 혁명적 공동체에 대한 정치사회적 탐사』, 정혜영 옮김, 서울:펜타그램.
- 우종민·김원·박상미·임성건. 2012. 「산림활동이 우울증 환자들의 호전에 미치는 영향: 산림치유 프로그램 집단과 병원 프로그램 집단, 산림욕 집단, 대조군 비교 연구」, 《한국산림과학회지》, 제101권 4호, 677-685쪽.
- 이광현·임현정. 2014. 「초등학생의 비만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분석」. 《한국초등교육》, 제25권, 3호, 275-291쪽.
- 이유진·김수정. 2011. 「공적서비스와 소비지출 불평등: 한국과 영국의 교육 및 보건의료비 지출 비교」. 《한국사회정책》, 제18집 1호, 239-265쪽.
- 이철현·정계환. 2005. 「초등학교 학생들의 게임 중독과 공격성 및 인성과의 관계」. 《한국정보교육학회》, 제9권 3호, 417-437쪽.
- 장상수. 2016. 「벌어지는 틈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 성적에 미치는 영향의 증가」. 《한국사회학》, 제50권 5호, 107-140쪽.
- 전은미·강선희·김규근. 2006. 「중학생의 컴퓨터 게임중독, 학업수행 및 신체병리 증상과의 관계」, 《한국자료분석학회》, 제8권 4호, 1465-1477쪽.
- 정재훈·김경민. 2014. 「교육의 공간 불평등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7권 2호, 385-401쪽.
- 조영민·신원섭·연평식·이효은. 2011. 「숲 체험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성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림휴양학회지》, 제15권 2호, 69-75쪽.
- 최진오. 2016. 「초등학생의 모바일게임중독이 학교생활적응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공감능력의 조절효과」, 《청소년시설환경》, 제14권 2호, 187-197쪽.
- 퍼트넘, 로버트(Rovert David Putnam). 2016. 『우리 아이들: 빈부격차는 어떻게 미래 세대를 파괴하는가』, 정태식 옮김, 서울:페이퍼로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2018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 전남: 한국콘텐츠진흥원.

- Jolanta, Burke and Dempsey, Majella. 2020. Covid-19 Practice in primary schools in Ireland report, National University of Ireland Maynooth.
- Brown, Natalie. et al. 2020. Learning at home during COVID-19: Effects on vulnerable young Australians, University of Tasmania.
- Doyle, Orla. 2020. COVID-19: Exacerbating Educational Inequalities?, Public Policy.IE.
- Blasko, Zsuzsa and Schnepf, Sylke V. 2020. Educational inequalities in Europe and physical school closures during Covid-19, Science For Polivy Briefs.
- 김영선, 이도경. "한국 아동·청소년 행복 수준 개선됐지만... OECD 바닥권". 《국민일보》. 2019년 8월 28일자.
- 김주연. "자정 이후 잠든다, 올빼미형 아동·청소년 급증". 《서울신문》. 2020년 5월 3일자.
- 뉴시스. "장석웅 전남교육감... 학습결손 학습격차가 큰 문제". 《뉴시스》. 2020년 8월 3일자.
- 박진우. "등교 막아 만든 '학교방역'... '방역만 성공, 교육은 실패' 지적도". 《조선비즈》. 2020년 7월 30일자.
- 이성희. "엄마, 우울해요... 아이들에게 번지는 '코로나 블루'". 《경향신문》. 2020년 6월 29일자.
- 이성희. "감염병 상황 끝나도 등교, 원격수업 병행". 《경향신문》. 2020년 8월 4일자.
- 임우선, 최예나. "아무 준비 없이 원격수업 시작... 출석체크 매달리다 수업 뒷전". 《동아일보》. 2020년 7월 20일자.
- Byun Hee-jin. 2017.5.2. "Korea still has OECD's least happy students". Koreaherald.